

제일.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기관(Morgan Stanley)과의 계약 체결

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503-9283

1. 그간의 추진현황

- o 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하여 '98.1.30 각 은행에 대하여 7,500억원씩 1조 5천억원을 출자한 바 있음.

(단위 : 억원, %)

	자본금 계	주주		
		일반주주	정부	예금보험공사
제일은행	16,000	1,000 (5)	7,500 (46.9)	7,500 (46.9)
서울은행	16,000	1,000 (5)	7,500 (46.9)	7,500 (46.9)

주) ()내는 지분율

- o '98년 3월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외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두 은행을 조기에 민영화하기로 결정

-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 구성하여 민영화를 추진

- *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 : 재경부 기획관리실장(위원장), 국고국장, 금융정책국장, 금융구조조정기획단장, 예금보험공사 전무, 은행감독원 부원장, 금융연구원 부원장, 제일은행 전무, 서울은행 전무로 구성

- o 두 은행의 자산실사를 위하여 Coopers & Lybrand 및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현재 자산실사중(6월말 완료 예정)

- 법무법인 태평양과 White & Case가 우리측 법무법인으로 선정

o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추진하게 될 주간사기관으로 5개 기관이 신청하였는데

- 이 중 4개 기관에 대하여 M&A 및 민영화 경험, 작업수행능력, 작업추진계획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평가순위 1위인 Morgan Stanley를 주간사기관으로 선정

2. 계약체결

o 서명자

- 우리측 : 재경부 국고국장 정의동, 예금보험공사 이정재 전무
- Morgan Stanley측 : Harrison Young(Managing Director)

o 서명일시 : '98.5.19(화) 15:00, 재경부 회의실(723호)

- * 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(수수료 지급수준등)은 국제관례에 따라 Morgan Stanley와의 합의에 의해 공표하지 않기로 함.

3. 향후 추진계획

o Kick-off Meeting 개최

- * Kick-off Meeting은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을 위한 ceremony의 성격임.

- 일시 및 장소 : '98.5.20(수) 10:00, 제일은행 본점 대회의실

- 참석자 :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 실무작업팀, 주간사, 회계법인, 법무법인,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관계자

o Kick-off Meeting 개최와 동시에 두 은행의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하여

- IMF와의 매각 합의시한인 '98.11.15보다 가능한 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